

『물명고』를 통해 본 유희의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해석

김봉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문헌학(서지학/고문서학) 전공

likecho@naver.com

- I. 머리말
 - II.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와 수록 형태
 - III.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해석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희(柳僖, 1773~1837)의 『물명고(物名考)』는 이만영(李晩永, 1748~1817)의 『재물보(才物譜)』와 함께 대표적인 물명(物名) 어휘집으로 손꼽힐 정도로 방대한 양의 물명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재물보』 등의 각종 물명 어휘집에서 세상의 온갖 명칭들을 총망라하여 수록한 것과는 달리, 『물명고』는 ‘자연물(自然物)’에 한정하여 물명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물명고』의 범주는 분류 체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¹ 대분류를 살펴보면, ‘물유정류(物有情類)’와 ‘물무정류(物無情類)’는 생물(生物)에 해당하고, ‘물부동류(物不動類)’와 ‘물부정류(物不靜類)’는 무생물(無生物)에 해당한다. 그 하위 분류로 설정된 ‘조류[羽蟲]’, ‘짐승[獸: 毛蟲/羸蟲]’, ‘해물[水族: 鱗蟲/介蟲]’, ‘곤충[昆蟲]’, ‘풀[草]’, ‘나무[木]’, ‘흙[土]’, ‘돌[石]’, ‘쇠[金]’, ‘불[火]’, ‘물[水]’ 또한 모두 자연물에 한정되어 있다.

각 분류 아래에는 개별 물명들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열거되어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 제시된 순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물명의 글자 크기와 표기 문자,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90251).

이 글은 2023년 11월 1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와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물명고의 종합적 검토」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가 2014년과 2015년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물명고 역해 연구」(연구책임자: 황문환)의 결과물은 이 글을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귀한 연구자료를 제공해 주신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토론자 정승혜 선생님, 세 분 심사위원 선생님의 지적과 조언에 감사드린다.

1 『물명고』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최경봉(2005), 이덕희(2007), 홍윤표(2013), 장유승(2014), 김일권(2019), 오보라(2019), 조영준(2021) 등의 연구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해설의 표현 방식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큰 글자로 표기된 물명들을 살펴 보면, 대표 물명으로 제시된 ‘표제어’와 연관 물명으로 제시된 ‘유의어’로 구분할 수 있다.² 그리고 작은 글자로 기술된 상세 설명[註解]에 또 다른 물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표기 문자에 따라 ‘한자물명’과 ‘한글물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곧 큰 글자로 표기된 물명들이 『물명고』에서 내세우는 주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물명고』에 수록된 어휘의 수량을 집계한 연구에 따르면, 표제어는 1,388개, 준표제어는 3,900개, 유의어는 3,904개로 총 9,192개의 한자물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글 대응어는 1,699개에 이른다고 한다.³ 여기에는 주해에 작은 글자로 제시된 한자물명의 수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큰 글자로 표기된 한자물명의 수량만 보더라도 한글물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어휘가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물명고』를 ‘한자 어휘분류집’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⁴

다만 『물명고』에 수록된 한자물명과 주해들이 대부분 『설문해자(說文解字)』, 『이아주소(爾雅注疏)』,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중국 서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적으로서의 독자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전대의 문헌을 존중하고 새로운 학설을 경계했던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학풍 안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또

2 물명 어휘집은 대체로 대표적인 물명을 먼저 제시한 뒤에 이와 연관된 물명들을 뒤에 어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이에 따라 『물명고』에 수록된 물명에 대하여 조영준(2021)의 연구에서는 ‘표제항’, ‘준표제항’, ‘동의어’, ‘외국어’로 세분하였고, 황문환·김정민(2022)의 연구에서는 ‘표제어’와 ‘유의어’, 황문환 외(2023)의 해제에서는 ‘표제어’, ‘준표제어’, ‘유의어’로 구분하였다.

3 황문환, 『物名考』 해제, 『물명고 역해 1』(서울: 역락, 2023), 354~357쪽.

4 심경호, 「朝鮮後期 漢字語彙分類集에 관하여」, 『朝鮮後期 漢字語彙 檢索辭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34쪽; 홍윤표, 「柳僖의 『物名考』」,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 45~48쪽.

한 물명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중국의 서적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검증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로 삼을 만한 내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유희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나 견해를 기술한 부분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중국 서적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연물의 특징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기술했으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한자물명 또는 한글물명에 대응시키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적에서 잘못 기술된 지식과 정보들을 바로잡는 한편, 자신이 습득한 견문과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왕의 물명 어휘집과 다른 『물명고』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명고』에 소개된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주목한 것도 우리나라 자연물의 명칭과 정보를 두루 수록하고자 한 유희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표기 문자로 인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한글물명과 달리 우리나라 한자물명은 다수의 중국 물명에 묻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리나라 한자물명’은 유희가 해당 물명의 주해에서 ‘우리나라의 물명’이라고 명시한 것으로서 한자로 표기된 물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희가 우리나라 한자물명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어휘를 가리킨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엄밀한 의미의 개념과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한자물명의 정의와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의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된 물명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유희가 인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한자물명 가운데서도 중국

의 문헌 기록에서는 찾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문헌에서 용례를 두루 찾을 수 있는 물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희가 인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한자물명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주해에서 우리나라 물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들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로 제시된 어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근거 제시 방식을 분류한 뒤 각각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중국 물명을 비롯하여 한글 물명과의 구별되는 우리나라 한자물명들을 일람하고자 한다. 해당 물명의 수록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물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유희의 해석을 중심으로 기존 학자들과의 견해 차이, 주요 관심 분야, 중국 물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물명 분류에 대한 고민 등을 살펴보았다.

II.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와 수록 형태

1. 근거 제시 방식

『물명고』에 수록된 우리나라 물명은 주해에서 근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우리나라 물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해조류 ‘김’을 가리키는 ‘海衣(해의)’가 있다. ‘海衣(해의)’는 『물명고』에서 ‘바닷속의 石衣(석의)를 따서 종이처럼 얇고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풀이와 함께 한글 대응어 ‘짐’이 제시되었으나, 우리나라 물명임을 나타내는 어구를 기술하지는 않았다. 반면, 『재물보』에서는 중국 물명 ‘紫菜(자채)’에 한글 대응어 ‘짐’과 함께

‘我東俗名(아동속명)’으로 ‘海衣(해의)’를 제시했으며,⁵ 이익의 『성호사설』과 유득공의 『고운당필기』에서도 ‘海衣(해의)’를 ‘俗名(속명)’이라 하여 우리나라 물명으로 제시했다.⁶ 따라서 ‘海衣(해의)’는 우리나라 한자물명이 틀림없지만, 『물명고』에서는 우리나라 물명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물명고』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록한 우리나라 물명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직접적인 근거 없이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해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구를 분명하게 기술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해에 보이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東俗(동속)’, ‘我東(아동)’, ‘我國(아국)’, ‘新羅(신라)’, ‘朝鮮(조선)’, ‘耽羅島(탐라도)’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명(國名)이나 지명(地名)을 제시한 경우이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루 쓰는 물명임을 설명할 때 나오는 문구이므로, 근거의 제시 방식은 ‘속칭(俗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東醫(동의)’, ‘譯語(역어)’, ‘詩諺解(시언해)’ 등과 같이 우리나라 서적의 명칭을 간략하게 제시하거나, ‘李晚永(이만영)’, ‘徐四佳(서사가)’, ‘李芝峯(이지봉)’ 등과 같이 우리나라 학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이다. 이때 학자의 이름만 언급한 것도 그들의 저술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거의 제시 방식은 ‘서명(書名)’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속칭’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물명은 주해에 ‘東俗(동속)’ 또는 ‘我東

5 『물명고』와 『재물보』에 수록된 ‘海衣’에 대한 기술 차이는 김봉좌(2022)의 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 柳僖, 『物名考』 권坤, 「物無情類·草」, “海衣[採海中石衣, 作薄片如紙. 漬]”; 李晚永, 『才物譜』 권冬, “紫菜[漬] … 海衣[我東俗名]”; 李晚永, 『才物譜』 권8, “紫菜[漬] … 海衣[俗名]”.
6 李瀾, 『星湖僿說』 권5, 「萬物門·綸組」, “爾雅曰, 綸似綸, 組似組. … 有俗名海衣者, 乃海中石上苔也. 色紫, 採者, 作片如紙, 恐亦是組也.”; 『古芸堂筆記』 권4, 「三種海藻」, “又有一種海苔, 俗呼海衣. 撈而曝之, 薄如紙, 煨食甚佳, 此皆東國之產, 以草類而與魚鹽相埒者也.”.

(아동) 등의 어구를 명시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江鐵(강철)’, ‘黃泡(황포)’, ‘燠造(훈조)’, ‘末醬(말장)’, ‘鼎小也鳥(정소야조)’가 있다.

(가-1) ‘속칭’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江鐵[표제어]

江鐵[… 東俗謂之江鐵, 疑是吉弔之類也.] 《物有情類-水族-介蟲》

江鐵[東海有俗呼江鐵者, 遍身帶火光, 未知亦能熟物否.] 《物不靜類-火》

② 黃泡[표제어], 燠造·末醬[표제어], 良醬[표제어]

大豆[콩] … 豆腐[두부] 黎祈[同] 黃泡[東俗語] … 豉[머조] 幽菽·醬黃[同] 燠造·末醬[東俗語] … 良醬[東俗呼清醬爲良醬.] 《物無情類-草》

③ 鼎小也鳥{杜鵑-주해}

杜鵑[… 春夏夜啼達朝, 聲甚哀. ○ 以此觀之, 正合於我東所謂鼎小也鳥, 而說者多以爲非也者, 何也.] 《物有情類-羽蟲》

‘江鐵(강철)’은 ‘물유정류(物有情類)-수족(水族)-개충(介蟲)’과 ‘물부정류(物不靜類)-화(火)’ 두 부류에서 표제어로 제시되었는데, 온몸에 빛이 나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동물로 풀이되었다.

‘黃泡(황포)’와 ‘燠造(훈조)·末醬(말장)’은 모두 ‘東俗語(동속어)’의 주해가 제시된 표제어로서 각각 중국 물명 ‘豆腐(두부)’와 ‘豉(시)’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한자물명이다.

‘鼎小也鳥(정소야조)’는 우리말 ‘소쩍새’를 한자로 표기한 물명으로서 중국 물명 ‘杜鵑(두견)’의 주해에서 작은 글자로 제시되었다. 유희는 ‘鼎小也鳥(정소야조)’와 ‘杜鵑(두견)’을 같은 종류의 새로 인식하면서 이를 다른 종류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재물보』에서 ‘鼎小也鳥(정소야조)’는 ‘杜鵑(두견)’과 달리 털 색깔이 붉고 울음소리가 ‘불여귀거(不如歸去)’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⁷ 현대 사전에 따르면 소쩍새는 올빼밧과에 속하고, 두견새는 삿갓과에 속하는 서로 다른 새라고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이만영의 견해가 옳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만영은 『동의보감』에서 ‘鼎小也鳥(정소야조)’를 ‘杜鵑(두견)’이라고 했으며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는 『동의보감』의 한글 대응어 ‘접동새’를 소쩍새로 잘못 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⁸

‘속칭’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물명 가운데 주해에 ‘新羅(신라)’, ‘百濟(백제)’, ‘高麗(고려)’, ‘朝鮮(조선)’ 등의 나라 이름을 명시한 경우가 있다. ‘果下(과하)’와 ‘海東靑(해동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2) ‘속칭(국명)’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果下[표제어]

馬[말] … 果下[出朝鮮. 極小.] 《物有情類-獸-毛蟲》

② 海東靑[松鶻-유의어]

松鶻[鷹鶻之族最快者, … 多是此鶻.] 海東靑[同. ○ 海東靑, 是新羅所貢云, 則似出我東, 而今無名色. 或者疑鶻鶻是也, 然鶻鶻, 未見有養者.] 《物有情類-羽蟲》

‘果下(과하)’는 조선(朝鮮)에서 나는 작은 말의 명칭으로 제시되었는데, 『재물보』에서 과일나무 밑을 다닐 수 있는 3자 높이의 말로 풀이된 ‘果下馬(과하마)’와 동일한 물명이다.⁹ 『후한서』 등 중국 문헌뿐만 아니라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우리나라 문헌에서도 중국에 공물로 바쳤던 우리

7 李晩永, 『才物譜』 권冬, “杜鵑[出南方, 如雀鶻, 而色慘黑, 赤口, 有小冠, 春夏夜啼達朝, 聲甚哀. 我東鼎小也鳥, 亦夜鳴達朝, 而毛色赤如血, 鳴聲又不彷彿於不如歸去, 而醫鑑稱杜鵑誤.]”

8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禽部·杜鵑」, “접동새. 一名子規.”

9 李晩永, 『才物譜』 권7, “果下馬[出朝鮮, 高三尺, 能行果下.]”

나라 말의 이름으로 소개되었다.¹⁰

‘海東靑(해동청)’은 ‘松鶻(송골)’의 유의어로서 신라시대 때 공물로 바친 우리나라의 새 이름으로 풀이되었다. 비슷한 내용이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에 보이는데, 세종대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바친 새라고 하였다.¹¹

‘속칭’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물명 가운데 ‘慶州(경주)’, ‘聞慶(문경)’, ‘關東(관동)’ 등의 지역 이름을 명시한 사례로는 ‘東京狗(동경구)’와 ‘潮汐泉(조석천)’을 예로 들 수 있다.

(가-3) ‘속칭(지명)’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東京狗{獐子狗-주해}

獐子狗[동경개, 我國慶州, 多短尾狗, 故俗云東京狗.] 《物有情類-獸-羸蟲》

② 潮汐泉{표제어}

潮汐泉[我東嶺南聞慶地有泉, 每日潮汐候時, 湧出如射, 俄而乾涸, 或云耽羅國多有之.]

《物不靜類-水》

‘東京狗(동경구)’는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꼬리가 짧은 개의 이름으로서 경주의 옛 이름인 동경(東京)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보인다. 동일한 내용이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보인다.¹²

-
- 10 『後漢書』 권115, 「東夷傳」, “(濊)又多文豹, 有果下馬. 〈李賢注〉高三尺, 乘之可於果樹下行.”; 李瀛, 『星湖僿說』 권4, 「萬物門·果下馬」, “又濊國出果下馬, 漢時恒獻之, 高三尺, 行於果樹下. 所謂濊國, 即我東之地也.”;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鳥獸類·獸·果下馬牛辨證說」, “史稱濊國, 出果下馬. 漢武時獻之, 高三尺, 行於果樹下.”.
- 11 李晔光, 『芝峯類說』 권20, 「禽蟲部·鳥」, “今俗以松鶻爲海東靑.”; 李瀛, 『星湖僿說』 권4, 「萬物門·海東靑」, “海東靑, 鶻類也. … 昔我世宗大王進海東靑, 明皇帝不受, 又賜鐵器, 此著於明史也.”.
- 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狗辨證說」, “獐子狗, 卽短尾狗也. 按今嶺南慶州府犬皆短尾, 故名東京狗.”.

‘潮汐泉(조석천)’은 우리나라 영남의 문경 지역에 있는 샘 이름으로, 매일 밀물과 썰물 때마다 용솟음치다가 금방 말라 버리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성호사설』에도 보인다.¹³

‘속칭’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물명 가운데에는 중국 물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희는 중국 물명과 우리나라 물명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기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4) ‘속칭’을 근거로 제시한 중국 한자물명

① 東珠[표제어]

東珠[왜진주. 然此華語也. 未必産於倭者爲東珠. 我國所産, 色白而品高, 倭地所産, 色靑而品劣, 通謂之東珠.] 《物有情類-水族-介蟲》

② 墨池·卽墨侯·石虛中·離石鄉侯·結隣[硯-유의어]

硯[벼루] 墨池·卽墨侯·石虛中·離石鄉侯·結隣[同. ○中國硯品, 有龍珠·鳳尾·銅雀瓦等, 名類種種, 指不勝屈, 而今未詳其形性. 只得以東産著之云.] 《物不動類-石》

‘東珠(동주)’는 ‘我國所産(아국소산)’ 곧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나는 진주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으로 소개되었다.

벼루의 또다른 명칭으로 제시된 ‘墨池(묵지)·卽墨侯(즉묵후)·石虛中(석허중)·離石鄉侯(이석향후)·結隣(결린)’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벼루로서 알려진 것들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물명의 또 다른 근거 제시 방식으로 ‘서명(書名)’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주해에서 우리나라 서적의 명칭이나 학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이다. ‘속칭’에 비해 근거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3 李瀾, 『星湖僿說』 권2, 「天地門·潮汐泉」, “聞慶縣有潮汐泉, 日再湧, 漑田頗多.”.

우리나라 서적의 명칭은 ‘鷹方(응방)’, ‘東醫(동의)’, ‘譯語(역어)’, ‘詩諺解(시언해)’, ‘東人醫書(동인의서)’ 등과 같이 약어로 제시되었으며, 학자의 이름은 ‘徐四佳(서사가)’, ‘李爛(이엄)’, ‘李芝峯(이지봉)’, ‘南藥泉(남약천)’, ‘李員嶠(이원교)’, ‘李晚永(이만영)’, ‘尹稼谷(윤가곡)’으로 성씨와 호(號)의 형태로 언급되었다.

서적의 명칭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한자물명은 ‘馬價木(마가목)’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나-1) ‘서명’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馬價木[丁公藤-주해]

丁公藤[湖廣深山有之, … 東醫稱馬價木, 誤矣. 馬價木, 是樛櫛之類, 非藤也.] 《物無情類-草》

‘馬價木(마가목)’은 ‘丁公藤(정공등)’의 주해에서 언급된 우리나라 물명으로 서 『동의보감』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동의보감』에는 ‘丁公藤(정공등)’의 한글 대응어로 ‘마가목’을 제시했을 뿐, 한자물명은 보이지 않는다.¹⁴ 유희는 이만영의 『재물보』를 읽은 뒤 『동의보감』의 오류를 지적했으므로, 이만영의 견해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물보』에도 한글 대응어 ‘마가목’만 보이고, 한자 표기는 없다.¹⁵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丁公藤(정공등)’과 ‘마가목(馬可木)’을 동일한 나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¹⁶ 유희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재물보』와 같이 기술한 것이다.

14 許浚, 『東醫寶鑑』「湯液篇·木部·丁公藤」, “마가목”.

15 李晚永, 『才物譜』 권8, “丁公藤[湖南深山有之, … 醫鑑稱마가목, 誤.] … 靈鑑稱마가목, 誤.] … 靈壽木[圓長皮紫, 節中腫似扶老. ○按疑是마가목.] 扶老杖·樛·櫛[別名].”

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萬物篇·封爵樹木鳥獸辨證說」, “丁公藤, 卽俗稱馬可木也.”

우리나라 학자의 이름이 언급된 한자물명의 예로는 ‘豆乙粥(두을죽)’과 ‘湏(폐)’가 있다.

(나-2) ‘서명(인명)’을 근거로 제시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豆乙粥[표제어]

豆乙粥[我東北道地有所謂豆乙粥者, 子如五味子而無核, 味甘酸過之, 充果高品. 芝峯疑爲蒟醬, 然不辛, 故非也.]《物無情類-草》

② 湏[표제어]

湏[朝鮮流水之總名. 南藥泉有所證說.]《物不靜類-水》

‘豆乙粥(두을죽)’은 ‘芝峯(지봉)’이 ‘蒟醬(구장)’으로 의심한 물명으로 동일한 내용이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보인다.¹⁷

‘湏(폐)’는 조선에서 흐르는 물의 통칭으로서 ‘南藥泉(남약천)’의 설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동일한 내용이 남구만의 「동사변증」과 『재물보』에 보인다.¹⁸ 모두 원 저자의 저술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구의 유형을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 제시 방식으로 간주하여 해당 물명들을 구분해 보면 <표1>과 같다. 한자로 표기된 물명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서적에 다수의 용례가 보이는 물명은 중국의 물명으로 간주하여 【중】으로 구분하여 열거했다.

개별 물명의 주해에 제시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구를 기준으로 해당 사례

17 李睟光, 『芝峯類說』 권19, 「食物部·果」, “史記蒟醬, 按本草曰, 蔓生, 實如桑椹, 蜜藏食之, 夔州嶺南皆有云. 然則蒟醬不獨出於西域矣. 今我國甲山地, 有俗名頭乙粥, 如覆盆子, 漬蜜食之, 疑此類也.”

18 『藥泉集』 권29, 「東史辨證·湏水」, “余昔時曾見一書, 云朝鮮之水皆稱湏, 猶中國北方之水稱河, 南方之水稱江.”; 李晚永, 『才物譜』 권1, “江[川之大者. 南方之水通謂之江, 北方之水通謂之河, 朝鮮之水通謂之湏.]”

표1-『물명고』에서 근거와 함께 소개된 우리나라 물명

분류	소계	속칭	서명		
物有情類	羽蟲	11	涅{표}, 鼎小也鳥{杜鵑-주}, 低狂{狂-주}, 海東靑{松鵬-유}, 籠奪{隼-유}, 구딘이/바름같이{蚊母鳥-주}	증경이{雉鳩-주}, 아리새{鸚-주}, 증경이{元央-주} 【중】晨風{花鶉-주}	
	獸	毛蟲	2	果下{표} 【중】犛牛{표}	-
		羸蟲	5	捨狴孫{失刺孫-주}, 담뱃{臊鼠-주}, 東京狗/동경개{獐子狗-주}	【중】五窮{표}
	水族	鱗蟲	19	시웁디{江黃-주}, 년어{鱧-주}, 白魚/빙어{膾殘魚-주}, 병어{魴/魴魚-주}, 걱정어{鱸-주}, 노어{四腮魚-주}, 돛고기{黑魷-주}, 은구어{黃鯧-주}, 가잠이{比目-주}, 大口魚{표}, 대구{大口魚-주}, 北魚{표}, 拔魚{표}, 방어{拔魚-주} 【중】泥{표}	민어{鮓魚-주}, 斑魚{鱖-주}, 날티{黃頰魚-주}
		介蟲	7	江鐵{표}, 擔羅{표}, 江瑤柱{표}, 고막/강요주{魁蛤-주}, 관음배꼽{珠螺-주} 【중】東珠{표}	-
	昆蟲	3	淸{표} 【중】五倍子{표}	풍당이{蠶螂-주}	
		38 {표제어13 / 유의어2 / 주해23}	9 {표제어1 / 주해8}		
物無情類	草	耳麥/귀오리{鈴鐺麥-주}, 조디/청디{藟-주}, 回軍草{표}, 쇠{回軍草-주}, 조리티기{王不留行-주}, 花桃花{표}, 黃泡{표}, 燻造·未醬{표}, 良醬{표}, 靑泡{표}, 甘葛{표}, 인가목{靈壽木-주}, 木通{표}, 番藷{표}, 시발쑉{白蒿-주}, 씨양{牛尾蒿-주}, 괴씨양{藜-주}, 三色鶴翎·禁花黃·勝金黃·醉楊妃·狀元紅·烏紅·馬蹄紅·笑雪白·帶雪白及黃·越女豎·御圈子·春羅白·燕京白及紅·老人白·西施剪圓·錦剪紅·惱西施·甘香黃·殺蜂香·盜黃·蘇州紅及黃·通州紅及黃白·玉臺·金盞·剪綵黃·早開黃·臘脂紅·大小甘菊·周秦黃·御衣黃{諸菊之名-주}, 白芍藥{표}, 광대자약{白芍藥-주}, 쌍두릅{土當歸-주}	웁새{罷王根草-주}, 장고지{王不留行-주}, 게우목{苜蓿-주}, 담장이{八散葫-주}, 馬價木{丁公藤-주}, 豆乙粥{표}, 멸{藪-주}, 쑤비{黃花菜-주}, 평지{臺臺-주}, 흰쑉{白蒿-주}, 접의쑉{靑蒿-주}, 진주봉{菴蘭-주}, 텅알{女苑-주}, 할미십갑이{白頭翁-주}, 말오줌나모{陸英-주}, 감젓대{虎杖-주}, 머취{白菜-주}, 도약이{蕎-주}		

분류	소계	속칭	서명	
草	122	紅參{丑}, 白條參{丑}, 生參{丑}, 羅參{丑}, 熟參{丑}, 江參{丑}, 北參{丑}, 稼參{丑}, 唐參{丑}, 白桔梗{丑}, 白吉更·甜吉更{白桔梗-주}, 滄泊塊{丑}, 芭蕉香{丑}, 金光草{丑}, 풀소음나물/팅알{紫苑-주}, 萬金草{丑}, 辛甘菜{丑}, 楮糊草{丑}, 南蠻椒{丑}, 고초{南蠻椒-주}, 청디넙{甘藍-주}, 御賜花{一丈紅-주}, 龍鞭草{丑}, 牛毛菜{丑}, 우무가스리{牛毛菜-주}	【중】繁縷{丑}, 紫花地丁{丑}, 澤漆{丑}, 鹿角菜{丑}	
		100 {표제어42 / 주해58}	22 {표제어5 / 주해17}	
物無 情類	木	62	新羅松{果松-유}, 白幹松{丑}, 塞木{丑}, 香栢{丑}, 향나무{香栢-주}, 香樟{丑}, 룡목{香樟-주}, 노나무{梓-주}, 가리/楸子/唐楸子{胡桃·羌桃-주}, 금강쥬{楸-주}, 황{黃漆-주}, 蝦蟆手樹{丑}, 단풍{蝦蟆手樹-주}, 姑榆{丑}, 시얏나무{生薑木-주}, 尾井水{宜茶水名-주}, 倭紅{丑}, 倭鍊竹{倭紅-주}, 倭暎山紅{丑}, 暎山紅{倭暎山紅-주}, 鍊竹{丑}, 茂丹花{丑}, 山丹花{丑}, 겨으살이/동충{凍靑-주}, 乳杏{丑}, 아가외{棠毬子-주}, 盒梨/錦香梨{消梨-주}, 멧{柰子-주}, 哥舒木{丑}, 가셔목{哥舒木-주}, 옥나모{柎-주}, 玉梅花{丑}, 陳皮/鄉陳皮{倭柑-주}	가리{楸-주}, 모괘쥬{楸-주}, 두릅{搯頭菜-주}, 느티괴{守宮槐-주}, 黃榆{丑}, 느티{黃榆-주}, 生薑木{丑}, 괴불열미{木半夏-주}, 산유자{栲栗-주}, 쓰리{柎-주}, 쓰리/가식/쓰리슬{柎-주}
			49 {표제어20 / 유1 / 주해28}	13 {표제어2 / 주해11}
		149 {표제어62 / 유1 / 주해86}	35 {표제어7 / 주해28}	

분류	소계	속칭	서명	
物不動類	土	1	油墨{丑}	-
	石	28	華斑石{丑}, 옥골{玉髓-주}, 烏石{丑}, 磬石{丑}, 옥돌{磬石-주}, 靛石{丑}, 細石{丑}, 熟石{丑}, 白麥飯石{熟石-유}, 靑石{丑}, 石朱·中朱·沙朱{丑}, 礬朱紅{丑}, 石間朱{丑}, 石鱗{丑}, 돌비늘{石鱗-주}, 소금가마{牢盆/鹽盤-주} 【중】墨池·卽墨侯·石虛中·離石鄉侯·結隣{硯-유}, 石黃{丑}, 牢盆{丑}, 鹽盤{丑}, 鐵鹽{丑}	【중】石樹{丑}
	金	2	沙金{丑}, 豆錫{黃銅-유}	-
		30 {표제어19 / 유의어7 / 주해4}	1 {표제어1}	
物不靜類	火	1	江鐵{丑}	-
	水	5	遷{丑}, 不流水{丑}, 潮汐泉{丑}, 酒泉{丑}	溟{丑}
		5 {표제어5}	1 {표제어1}	
총계	268	222 {표제어99 / 유의어10 / 주해113}	46 {표제어10 / 주해36}	

들을 추출한 결과, ‘속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가 222건, ‘서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가 46건으로 총 268건의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속칭’을 근거로 한 물명이 ‘서명’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는 세속적인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근거의 타당성과 신빙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분류 체계별로 물명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동물에 해당하는 ‘物有情類(물유정류)’는 47건, 식물에 해당하는 ‘物無情類(물무정류)’는 184건, 고체 물질에 해당하는 ‘物不動類(물부동류)’는 31건, 액체 물질에 해당하는 ‘物不靜類(물부정류)’는 6건으로 부류별로 각기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특히, ‘풀[草]’

과 관련된 물명이 122건, ‘나무[木]’와 관련된 물명이 62건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2. 수록 형태

『물명고』에서 제시된 물명들은 그 수록 형태에 따라 ‘표제어’, ‘유의어’, ‘주해’로 구분할 수 있다. ‘표제어’는 큰 글자로 표기된 물명으로서 대체로 주해가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물명뿐만 아니라 외국어, 속어 등의 ‘준표제어’도 포함된다. ‘유의어’는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큰 글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同(동)’이라는 주해를 붙여 ‘표제어’와 동일한 뜻의 연관 물명으로 제시된 점이 다르다. ‘주해’의 형태로 제시된 물명은 작은 글자로 표기된 물명으로서 ‘표제어’나 ‘유의어’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기술된 물명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물명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수록된 배경에는 해당 물명의 보편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유희의 생각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조선후기까지 사용된 보편적인 물명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유희가 『물명고』를 편찬할 당시에 정립한 물명의 수록 원칙이나 대표 물명의 선정 근거 등을 기록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물명의 수록 형태와 순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표제어 형태로 수록된 사례로 ‘수족(水族)-인충(鱗蟲)’ 부류의 ‘大口魚(대구어)’와 ‘北魚(북어)’, ‘초(草)’ 부류의 ‘萬金草(만금초)’가 있다.

(다-1) ‘표제어’로 제시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大口魚{표제어}, 北魚{표제어}

大口魚[東海有之, 殺身細鱗, 其口甚大, 故俗名대구. 或合作吞字, 亦作吳字, 竝非。]○

北魚[大口魚之小者, 出東海之北邊, 故得名.] 《物有情類-水族-鱗蟲》

② 萬金草[표제어]

草烏頭[有二種. 其一, 莖長而葉類秦芣, 根稍大而長, 今人用充草烏. 其一, 莖矮而葉類益母, 根稍小而圓, 今人用爲萬金草, 其實則同是. 꽃더나무] … 萬金草[一種小者. 東俗新稱.] 《物無情類-草》

‘大口魚(대구어)’와 ‘北魚(북어)’는 우리나라 동해에 사는 물고기 종류의 이름으로서 표제어로 제시된 사례이다. 동일한 종류의 물고기를 가리키는 중국 물명이 없는 사례로서 우리나라 물명에 해당된다. ‘萬金草(만금초)’는 ‘草烏頭(초오두)’의 일종으로서 표제어로 제시되었다. 크기가 작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부르게 된 명칭이라 하였다.

유의어의 형태로 수록된 사례로는 ‘籠奪(농탈)’이 있다.

(다-2) ‘유의어’로 제시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籠奪[隼-유의어]

隼[조룡티] 雀鷹·題肩·擊征·鷗·籠奪[同. ○ 華語所謂弄鬪兒, 似是東俗籠奪, 而隼與鷗, 則未知爲各類與否.] 《物有情類-羽蟲》

‘籠奪(농탈)’은 ‘隼(준)’의 여러 ‘유의어’와 함께 열거되었는데, 주해에서 중국어의 ‘弄鬪兒(농투아)’에서 유래된 우리나라 물명으로 설명되었다.

표제어나 유의어와 달리 작은 글자로 기술된 우리나라 한자물명은 여러 국화의 명칭을 뜻하는 표제어 ‘諸菊之名(제국지명)’의 주해에서 찾을 수 있다.

(다-3) ‘주해’로 제시된 우리나라 한자물명

鞠[俗作菊. 구화] … 諸菊之名[七色鶴翎·狀元紅及紫·福州紫·洒金香·倚闌嬌·剪桃

紅·羅傘·紫袍·芙蓉·絞絲鎖口·佛頭·二喬·金菊·飛金剪草·大小攢花·剪綃·銀薇·牡丹·蕪桃·綉毬·嫦娥·獅蠻·撮頭·月下·蠟瓣·葡萄·西施等諸種, 並中國所呼也, 三色鶴翎·禁花黃·勝金黃·醉楊妃有角無角·狀元紅·烏紅有金絲無金絲·馬蹄紅·笑雪白·帶雪白及黃·越女豎·御圈子·春羅白·燕京白及紅·老人白·西施剪圓·錦剪紅·惱西施·甘香黃·殺蜂香·盜黃·蕪州紅及黃·通州紅及黃白·玉盒金盞·剪綵黃·早開黃·臙脂紅·大小甘菊·周秦黃·御衣黃等諸種, 並我東所呼也,]《物無情類·草》

국화를 가리키는 여러 명칭들을 나열한 항목에 해당한다. ‘七色鶴翎(칠색학령)’부터 ‘西施(서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명칭을 먼저 기술한 뒤에 우리나라의 물명들을 열거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화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한자 물명은 ‘三色鶴翎(삼색학령)’, ‘禁花黃(금화황)’, ‘勝金黃(승금황)’을 비롯하여 ‘周秦黃(주진황)’, ‘御衣黃(어의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다.

유희는 『물명고』를 편찬하기 전에 이만영의 『재물보』를 검토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국화의 명칭을 예로 들면서 가능한 한 많은 명칭을 수록해야 한다고 조언한 내용이 편지로 남아 있다.¹⁹⁾ 이에 따라 『물명고』를 편찬할 때 ‘諸菊之名(제국지명)’, ‘諸品之名(제품지명)’ 등 여러 가지 물명을 뜻하는 표제어를 제시하고, 그 아래 주해에서 작은 글자로 다수의 물명을 열거한 것으로 보인다. 각 물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중국의 물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명을 두루 수록하여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문과 같이 『물명고』에 수록된 형태에 따라 물명의 수량을 집계해 보면 <표2>와 같다. 중국 문헌에서 다수의 용례가 발견되는 중국 물명은 구분하여 표시했다.

19 황문환, 「柳僖의 『才物譜』 비판을 통해 본 『物名考』의 차별성: 1807년 柳僖가 李晩永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2016), 90~102쪽.

표2-우리나라 물명의 수록 형태

분류		소계	표제어	유의어	주해	
物有情類	羽蟲	11	한자(1)	한자(2)	한자(2), 한글(5) 【중】(1)	
	獸	毛蟲	2	한자(1) 【중】(1)	-	-
		羸蟲	5	【중】(1)	-	한자(2), 한글(2)
	水族	鱗蟲	19	한자(3) 【중】(1)	-	한자(2), 한글(13)
		介蟲	7	한자(3) 【중】(1)	-	한글(3)
	昆蟲	3	한자(1) 【중】(1)	-	한글(1)	
物無情類	草	122	한자(31) 【중】(16)	-	한자(41), 한글(32) 【중】(2)	
	木	62	한자(16) 【중】(6)	한자(1)	한자(9), 한글(25) 【중】(5)	
物不動類	土	1	한자(1)	-	-	
	石	28	한자(13) 【중】(5)	한자(1) 【중】(5)	한글(4)	
	金	2	한자(1)	한자(1)	-	
物不靜類	火	1	한자(1)	-	-	
	水	5	한자(5)	-	-	
총 계		268	한자(77) 【중】(32)	한자(5) 【중】(5)	한자(56), 한글(85) 【중】(8)	

〈표2〉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자물명은 『물명고』에서 표제어의 형태로 수록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해에서 작은 글자로 제시된 사례가 56건, 유의어로 수록된 사례가 5건이 있었다.

『물명고』에서 ‘표제어’나 ‘유의어’의 형태로 수록된 물명은 모두 큰 글자로 표기된 사례로서 비중 있게 수록된 어휘이다. 이는 유희가 해당 물명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였던 명칭이기 때문에 보편성 또는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주해에서 작은 글자로 제시된 우리나라 물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널리 쓰이지 않았던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

Ⅲ.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해석

1. 우리나라 서적에 수록된 물명에 대한 비판

『물명고』는 자연물 관련 물명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수록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에서 발췌하거나 요약한 내용이 많다. 『물명고』에 언급된 서적의 명칭과 인명을 조사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70여 건의 서적 명칭과 24명의 학자 이름이 확인되는데,²⁰ 실제로 유희가 참조한 문헌은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적이나 학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가 많지 않은 까닭은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희는 기왕의 물명 정보를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경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되 해당 인용 문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의심되거나 오류로 보이는 사례가 있으면 해당 서적이나 학자의 이름을 언급한 뒤에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서적의 명칭이나 학자의 이름을 언급한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 박용만, 「『物名考』 인용문헌 연구」, 『“유희의 『物名考』 연구와 색인 편찬” 연구결과발표회 자료집』(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19~26쪽.

우리나라 서적의 명칭이나 학자의 이름은 간략한 어구로 표현되었는데, 추정되는 인용 문헌의 명칭을 시기순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徐四佳(서사가)’는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유합(類合)』, ‘李爛鷹方(이염응방)’은 이염(李爛, 1518~1553)의 『신증응골방(新增鷹鵠方)』, ‘東醫(동의)’와 ‘醫鑑(의감)’은 허준(許浚, 1539~1615)의 『동의보감(東醫寶鑑)』, ‘李芝峯(이지봉)’은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 ‘譯語(역어)’는 1690년(숙종 16)에 간행된 『역어유해(譯語類解)』, ‘詩經舊諺解(시경구언해)’와 ‘詩解(시해)’는 1695년(숙종 21)에 간행된 『시경언해(詩經諺解)』, ‘南藥泉(남약천)’은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저술, ‘李員嶠(이원교)’는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저술, ‘李上舍晚永(이상사만영)’은 이만영(李晩永, 1748~1817)의 『재물보(才物譜)』, ‘尹稼谷(윤가곡)’은 윤광안(尹光顔, 1757~1815)의 저술, ‘東人醫書(동인의서)’는 1799년(정조 23)에 간행된 『제중신편(濟衆新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거정의 『유합』, 허준의 『동의보감』, 『시경언해』에 수록된 물명 해석에 대해서는 유희의 또 다른 저술 「만물류(萬物類)」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학사(學士) 조종진(趙琮鎭, 1767~1845)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문집은 다른 나라에 보여줄 수 없으니, 물명(物名)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 물명의 오류는 다른 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유합(類合)』, 『동의보감(東醫寶鑑)』, 『시경언해(詩經諺解)』 세 책 때문이다. 모두 언문 주석을 달았는데 후학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굳게 기억한 탓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여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유합』의 오류는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대략 바로잡은 것이 있어서 지금 「서자류(書字類)」에 실었고, 『시경언해』의 경우는 내가 『물명고』 1권

을 저술하여 논증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선 『동의보감』에서 잘못 번역한 것을 모아서 독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²¹

유희는 우리나라 물명 지식의 오류가 서거정의 『유합』, 『동의보감』, 『시경언해』 세 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각 책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자신이 저술한 글들을 소개하였다. 즉, 『유합』의 오류 논증은 이광사의 글을 포함하여 「서자류(書字類)」에 기술하였으며, 『시경언해』의 오류 논증에 대한 글은 『물명고(物名考)』 1권으로 엮었으며, 『동의보감』의 오류 논증은 「만물류」에 수록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물명고’는 현재 2책의 방대한 분량으로 전하는 『물명고』가 아니라, 『시경언해』의 한글 물명을 논증한 『시물명고(詩物名考)』를 가리킨다.

「만물류」의 저술 시기는 1822년 이후부터 1825년 사이로 『물명고』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²² 즉 유희는 물명에 대한 지식 정보를 축적하면서 정립한 독자적인 해석과 오류 논증을 단편적인 저술로 남기게 되었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로 『물명고』를 편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물류」와 『물명고』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유희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한자물명 ‘馬價木(마가목)’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柳僖, 『類錄』 「萬物類」, “趙學士琮鎮, 嘗言東人文集, 不可使見於他邦, 以其物名之誤用也. 物名之誤, 非緣他書, 只因徐四佳類合及東醫寶鑑·詩諺解三處, 皆懸諺文之註, 後生見此, 牢記在心, 一世雷同, 曉悟不得也. 類合之誤, 李圓嶠匠師略有所正, 今載之書字類. 而詩諺解, 則儻嘗著物名攷一卷以論之. 故今姑撮東醫之謬釋者, 使看者得以考取焉.”

22 오보라, 「西坡 柳僖 『物名考』의 체계 및 의의 재탐색」, 『대동한문학』 58(2019), 245~287쪽.

(라-1) 우리나라 서적(『동의보감』)에 수록된 한자물명

① 馬價木[丁公藤-주해]

丁公藤[湖廣深山有之, … 東醫稱馬價木, 誤矣, 馬價木, 是樛櫛之類, 非藤也.] 南藤·丁父·風藤·石南藤[同] ○ 靈壽木[圓長皮紫, 節中腫似扶老, 可以爲杖, 此恐是今俗所謂인가목.] 扶老·杖梏·櫛[同. 此實木類, 而特辨丁藤之故, 附此.] 《物無情類-草》

‘馬價木(마가목)’은 ‘丁公藤(정공등)’에 대한 주해에 보이는데, 『동의보감』의 한글 대응어 ‘마가목’을 한자로 표기한 물명이다.²³ 유희는 『동의보감』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樛櫛(규목)’이나 ‘가죽나무[櫛]’의 부류이지, ‘등나무[藤]’의 부류가 아니라고 논박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지적은 이만영의 견해에 동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만영은 『재물보』 4책본에서 ‘丁公藤(정공등)’을 ‘마가목’이라고 해석한 『동의보감』의 오류를 지적했고, 8권본에서는 ‘靈壽木(영수목)’을 ‘마가목’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²⁴ 유희는 ‘靈壽木(영수목)’의 한글 대응어로 ‘인가목’을 제시함으로써 ‘영수목’에 대한 이만영의 해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견해는 「만물류」에 자세히 보인다.

‘丁公藤(정공등)’은 호남(湖南)과 광둥(廣東)의 깊은 산속에 있는데, 가느다란

23 許浚, 『東醫寶鑑』「湯液篇·木部·丁公藤」, “마가목. … 一名南藤, 莖如馬鞭, 有節, 紫褐色, 葉如杏葉而尖. 採無時, 漬酒服[本草].”.

24 李晩永, 『才物譜』 권8, “丁公藤[湖南深山有之, 細藤圓膩, 紫綠色, 一節一葉, 葉深綠色, 似杏葉而微短, 莖貼樹處, 有小紫瘤, 中有小孔, 四時不凋, 莖葉皆臭而極辣, 醫鑑稱마가목, 誤.] … 靈壽木[圓長皮紫, 節中腫似扶老.] ○扶老杖·梏·櫛[本]”; 李晩永, 『才物譜』 권8, “丁公藤[湖南深山有之, 細藤圓膩, 紫綠色, 一節一葉, 葉深綠色, 似杏葉而微短, 莖貼樹處, 有小紫瘤, 中有小孔, 四時不凋, 莖葉皆臭而極辣, 醫鑑稱마가목, 誤.] … 靈壽木[圓長皮紫, 節中腫似扶老. ○按疑是마가목.] 扶老杖·梏·櫛[別名].”.

덩굴이 둥글고 기름지며, 자녹색(紫綠色)이다. 한 마디에 한 개의 잎이 나고, 줄기가 나무에 붙은 부분에는 자그마한 보라색 혹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다.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으며, 줄기와 잎 모두 냄새를 풍기지만 매우 맵다. 이것이 어찌 ‘마가목’과 비슷한가? ‘마가목’은 곧 ‘蝦蟆手樹(하마수수)’의 별종으로 산에서 자라는 것이다. 이만영(李晩永)이 ‘梠(거)’와 ‘櫨(궤)’에 속한다고 의심하였는데, 이 또한 아니다.²⁵

유희는 ‘마가목’을 ‘梠(거)’와 ‘櫨(궤)’의 부류로 본 이만영의 해석을 부정하면서 ‘蝦蟆手樹(하마수수)’의 별종이라고 생각했다. ‘梠(거)’와 ‘櫨(궤)’는 곧 ‘靈壽木(영수목)’의 유의어에 해당하므로, 『재물보』의 내용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보감』과 같이 ‘丁公藤(정공등)’과 ‘馬價木(마가목)’을 동일한 나무로 보거나, 『재물보』와 같이 채찍이나 지팡이를 만드는 나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²⁶ 유희는 『물명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오류에 해당하는 사례로 ‘生薑木(생강목)’이 있다.

(라-2) 우리나라 서적(『제중신편』)에 수록된 한자물명

② 生薑木[표제어]

-
- 25 柳僖, 『類錄』 「萬物類」, “丁公藤, 湖廣深山有之, 細藤圓膩, 紫綠色, 一節一葉, 其莖貼樹處, 有小紫瘤, 中有小孔, 四時不凋, 莖葉皆臭極辣, 此豈近似於마가목乎. 마가목, 乃蝦蟆手樹之別一種山生者, 而李晩永疑當屬梠櫨, 亦非也.”; 李晩永, 『才物譜』 권8, “丁公藤[湖南深山有之, 細藤圓膩, 紫綠色, 一節一葉, 葉深綠色, 似杏葉而微短, 莖貼樹處, 有小紫瘤, 中有小孔, 四時不凋, 莖葉皆臭而極辣, 醫鑑稱마가목, 誤.] … 靈壽木[圓長皮紫, 節中腫似扶老. ○按疑是마가목.] 扶老杖·梠櫨[別名].”
- 2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萬物雜類·草木鳥獸蟲魚雜說·封爵樹木鳥獸辨證說」, “丁公藤, 卽俗稱馬可木也.”; 『雅亭遺稿』 권7, 「文·書·與元若虛有鑰書」, “俗稱馬櫨木, 原號何字? 馬櫨木, 只知爲鞭與杖, 而不知爲何物.”

生薑木[我東有呼시양나무者, 皮圍尖有毛, 花黃, 作細粟朵, 折其枝, 有生薑臭, 猶是桂類也. 東人醫書, 謂是黃梅, 誤甚矣.] 《物無情類-木》

‘生薑木(생강목)’은 ‘생강나무’의 한자물명인데 ‘東人醫書(동인의서)’ 곧 우리나라 의학 서적에서 ‘黃梅(황매)’로 잘못 분류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우리나라 의학 서적의 이름은 「만물류」에서 1799년(정조 23)에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제중신편(濟衆新編)』이라고 밝혔다.²⁷ ‘황매’로 인식한 오류는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도 발견된다.²⁸

이처럼 유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물명고』에 기술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서적의 물명 해석에 대한 유희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표3>과 같다. 기왕의 물명 해석에 대한 유희의 견해를 사례별로 분류한 뒤 각 사례에 해당하는 물명을 표기 문자에 따라 구분하고, 『물명고』에 수록된 분류명(예: [水], [草])과 인용 서적이거나 학자의 이름(예: <남구만>, <동의보감>)을 덧붙여서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동의 14건, 의심 8건, 부정 26건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의심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3>에 제시된 물명은 한글물명이 한자물명보다 많다. 주로 중국의 한자 물명에 알맞지 않은 우리말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柳僖, 『類錄』, 「萬物類」, “黃梅, … 我東有생강나무, … 而濟衆新編以爲黃梅, 誤甚矣.”

28 正祖, 『弘齋全書』 권178, 「日得錄」 18, “若以黃梅枝(俗所謂生薑木)兼用, 則頗制涼味.”

표3-우리나라 서적의 물명 해석에 대한 유희의 견해와 해당 물명

동의	의심	부정
溟[水] <남구만> 黃榆[木] <이광사> 斑魚[鱗蟲] <이만영>	【중】 五窮[蠱蟲] <윤광안> 鹿角菜[草] <동의보감>	馬價木[草] <동의보감> 豆乙粥[草] <이수광> 生薑木[木] <제중신편> 【중】 晨風[羽蟲] <신증응골방> 繁縷/紫花地丁/澤漆[草] <동의보감> 石樹[石] <이수광>
증경이[羽蟲], 진주봉/팅알/ 머취[草] <동의보감> 풍덩이[昆蟲], 워새[草], 두릅 [木] <역어유해> 도약이[草] <시경언해> 느티[木] <이광사> 민어[鱗蟲], 괴불열미[木] <이 만영>	아리새[羽蟲], 장고지/할미 십갑이/말오줌나모/감젓대 [草] <동의보감> 산유자[木] <이만영>	느티괴[木] <서거정> 민어[鱗蟲], 계우목/담장이/멸/평지/흰 썩/접의썩[草], 가리/모람쭈/쓰리/쓰리 썩 <동의보감> 썸비[草] <역어유해> 증경이[羽蟲], 날티[鱗蟲], 가리/쓰리/가 식[木] <시경언해>
14 {한자3/ 한글11}	8 {한글6/ 중국2}	26 {한자3/ 한글18/ 중국5}

2. 초목류 관련 물명에 대한 특별한 관심

유희는 이만영의 『재물보』를 검토한 뒤 1807년(순조 7)에 보낸 편지에서 “대개 여러 가지 술수(術數)의 주석과 새·짐승·풀·나무에 대한 우리말 풀이[譯釋]가 자칫 틀리기 쉬우니 마땅히 널리 상고해야 합니다.”라고 쓴 바 있다.²⁹ 그리고 「만물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명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이 많은데, ‘목류(木類)’가 더욱 심하다.”라고 하였다.³⁰

〈표1〉에 제시된 우리나라 물명의 수량을 보더라도 ‘풀[草]’과 관련된 물명

29 황문환(2016), 앞의 논문, 91쪽.

30 柳億, 『類錄』「萬物類」, “東人物名多誤, 尤甚木類.”.

이 122건, ‘나무[木]’와 관련된 물명이 62건으로, 전체 268건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한다. 곧 초목류(草木類) 물명에 대한 유희의 특별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풀과 관련된 한자물명에는 (다3)의 예문과 같이 주해의 형태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국화 명칭 36건도 있고, 우리나라 특산물에 해당하는 인삼(參)과 관련된 명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인삼(參)과 관련된 명칭은 모두 상세한 주해를 덧붙인 표제어로 제시되었는데, ‘紅參(홍삼)’, ‘白條參(백조삼)’, ‘生參(생삼)’, ‘羅參(나삼)’, ‘熟參(숙삼)’, ‘江參(강삼)’, ‘北參(북삼)’, ‘稼參(가삼)’, ‘唐參(당삼)’으로 모두 9건이다.

(마-1) 풀과 관련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紅參[표제어], 白條參[표제어], 生參[표제어], 羅參[표제어], 熟參[표제어], 江參[표제어], 北參[표제어], 稼參[표제어], 唐參[표제어],

紅參[出上黨山谷, 色紅, 品最高, 我東以稼參偽造, 亦名紅參, 然不良.] … 白條參[本經云, 出百濟, 白堅且圓, 即東俗生參也.] 羊角參[同] 生參[我東東南諸地採者, 刮薄皮不製, 而曬乾色白者, 摠謂之生參.] 羅參[生參之出於新羅故墟者, 品高, 爲紅參之亞.] 熟參[我東西北諸地採者, 以黃米糊製之, 蒸乾色黃者, 摠謂之熟參.] 江參[熟參之出於江界廢四郡等地者, 品亞於羅參.] 北參[熟參之出於關北者, 品稍下.] 稼參[我東近俗, 圃種人參, 力最緩, 可常服.] … 唐參[泰山梁魯等地所產者, 東人呼唐參. 然拉是薺芑沙參之族, 全無溫補之性. 中國亦近日則不用云.] 《物無情類-草》

‘紅參(홍삼)’은 본래 상당산 골짜기에서 나는 붉은 인삼을 가리키지만, 집에서 기른 ‘稼參(가삼)’으로 만든 것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白條參(백조삼)’은 『본경(本經; 신농본초경)』에 수록된 백제에서 나는 인삼의 명칭으로서 ‘生參(생삼)’과 같다고 하였다. ‘生參(생삼)’은 우리나라에서 채취

한 인삼으로 말렸을 때 색이 흰 것이라 하였고, ‘羅參(나삼)’은 ‘生參(생삼)’의 일종으로 풀이되었다. ‘熟參(숙삼)’은 말렸을 때 색이 노란 것이라 하였으며, ‘江參(강삼)’과 ‘北參(북삼)’이 ‘熟參(숙삼)’의 일종으로 소개되었다. ‘稼參(가삼)’은 집에서 재배하는 인삼의 명칭이며, ‘唐參(당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인삼을 일컫는 명칭이라 하였다.

인삼과 관련된 명칭은 『재물보』에도 보이는데, 주해에서 인삼의 산지만 간략하게 밝혔을 뿐 특징이나 설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물명고』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³¹

나무와 관련된 물명 또한 표제어 또는 유의어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마-2) 나무와 관련된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香栢{표}

檜栢[體堅葉尖, 質赤, 雜長亦難萎. 恐卽향나무.] … 香栢[我東本無他香木, 惟有栢類之赤肌者, 用以焚薰, 謂之향나무. 此與番地所產之檀香者, 迥非一類, 而徒以其肌理之相似, 遂入藥, 以充紫檀之名, 極可慨也.] 《物無情類-木》

② 香樟{표}

樟[高丈餘, … 而錯縱有文.] 香樟[耽羅島有稱馮木者. 肌理如穀紋, 有異香氣, 胡元時遣人求之, 稱爲香樟木, 然則中國樟木, 亦此類否.] 《物無情類-木》

‘香栢(향백)’은 중국의 ‘檜栢(회백)’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물명으로서 표제어로 제시되었다. 주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본래 ‘香木(향목)’ 즉 향나무가 없는데 붉은 겹질의 측백나무[栢]를 불사르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향나무라

31 李晩永, 『才物譜』 권8, “白條參[出百濟, 白堅且圓.] 羊角參[同] … 紅參[出上黨] 紫參[同] 熟參[出朝鮮] 生參[亦名羅參] 稼參[家種] 江參[出江界] 北參[出咸鏡道].”

이른다고 하였다. 또 ‘香樟(향장)’은 중국의 ‘樟(장)’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물명으로서 탐라도에 나는 나무로 풀이되었다. 『고려사절요』에는 ‘香樟木(향장목)’으로 나오며, 『재물보』에는 ‘香樟(향장)’의 한글 대응어 ‘룡목’을 표기한 한자물명 ‘龍木(용목)’이 보인다.³²

‘香栢(향백)’과 ‘香樟(향장)’에 대한 유희의 견해는 『만물류』에서도 확인되는데, 약재(藥材)로서의 효용성에 초점을 두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향이 나는 것은 매우 드문데, 오직 ‘麝(사)’와 ‘香鼠(향서)’를 비롯하여 나무 종류의 ‘香栢(향백)’과 ‘香樟(향장)’, 풀 종류의 ‘靑木香(청목향)’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麝(사)’는 냄새가 미미해도 쓰기에 무방하고, ‘香鼠(향서)’는 ‘麝香(사향)’이 부족할 때 충당하여 쓸 수 있다. ‘靑木香(청목향)’은 진짜 품종이 아니더라도 또한 대신 쓸 수 있다. ‘香樟(향장)’은 달여서 ‘韶腦(소뇌)’를 만들 수 있다. ‘香栢(향백)’은 약(藥)에 넣으면 ‘紫檀(자단)’보다 덜하지 않아 옛날부터 수효를 채웠기 때문에 마침내 허준(許浚)이 잘못 알기에 이른 것인가? ‘香樟(향장)’은 제주(濟州)에서 나오는데, 세속에서 ‘용목’이라 하는 것이다.³³

초목류 물명을 고증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 유희의 관심은 약재로서의 풀과 나무를 분별하는 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문헌 가운데 『동의보감』의 물명을 고증한 사례가 가장 많은 까닭은 우리말 명칭의 오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약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2 『高麗史節要』 권20, 「忠烈王·癸未九年[元至元二十年]」, “春正月, 元遣伯刺介來, 求耽羅香樟木.”; 李晩永, 『才物譜』 권8, “杉[익가. … 類松而經直, 葉附枝上. 按俗稱龍木, 疑卽此.]”.

33 柳僖, 『類錄』 「萬物類」, “蓋我東香物極尠, 惟麝與香鼠, 木之香栢·香樟, 草之靑木香而已. 故余謂麝雖臭微, 用無疑矣, 香鼠, 可充麝香之乏絶. 靑木香雖非眞種, 亦可代用. 香樟, 可煎作韶腦. 香栢, 入藥, 不減於紫檀, 自古充數, 遂致許浚之誤認歟. 香樟, 出濟州, 俗謂용목者.”.

다. 이에 따라 유희는 짧은 기록물에 해당하는 「의약류(醫藥類)」와 「만물류」를 남길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물명고』와 같은 저술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중국 물명과 다른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고증

『본초강목』에는 ‘藥名同異(약명동이)’라고 하여 이름은 같으나 전혀 다른 약재들을 모아둔 항목이 있다.³⁴ 마찬가지로 중국의 물명과 한자는 동일하나, 전혀 다른 자연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한자물명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실정을 유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헌에 기술된 주해와 우리나라 자연물의 특징을 꼼꼼하게 비교 검토하여 고증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白魚(백어)’가 있다.

(바-1) 중국 물명과 다른 우리나라 한자물명

① 白魚(膾殘魚-주해)

白魚[生江湖, 色白, 頭昂. 大者六七尺, 腹扁鱗細, 頭尾俱向上, 肉中多細刺. 此與俗白魚異, 此今所謂우럭이. 形類鱗魚, 但生沙水中, 善跳躍.] ○ 膾殘魚[身圓如筋, 四五寸, 潔白無鱗, 目有兩黑點. 此東俗所謂白魚, 而非眞白魚也. 빙어] 王餘魚·銀魚·麵條魚[同] 《物有情類-水族-鱗蟲》

중국 물명 ‘白魚(백어)’에 대해 한글 대응어로 ‘우럭이’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白魚(백어)’라고 불리는 것과 다르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白魚(백어)’는 한글 대응어 ‘빙어’로서 중국 물명 ‘膾殘魚(회잔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두 물고기 모두 흰색이기 때문에 ‘白魚(백어)’라고 불리지만, 이름만

34 李時珍, 『本草綱目』 권2, 「序例下·藥名同異」.

같고 생김새는 전혀 다른 물고기라는 것이다.

주해를 보면, 중국의 ‘白魚(백어)’는 배가 납작하고 비늘이 자갈하며, 머리와 꼬리가 모두 위로 향해 있고 살 속에 자갈한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白魚(백어)’에 해당하는 ‘膾殘魚(회잔어)’는 짓가락처럼 몸이 둥글고 비늘이 없으며, 눈에 두 개의 검은 점이 있다고 하였다. 크기 또한 중국의 ‘白魚(백어)’는 큰 놈이 6~7자[尺]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白魚(백어)’는 4~5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白魚(백어)’에 대한 논증 과정은 「만물류」에도 보인다.³⁵

또 다른 사례로 ‘江瑤柱(강요주)’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바-2) 중국 물명과 다른 우리나라 한자물명

② 江瑤柱[표제어]

江瑤[生江水, 似蚌, 上天下小, 肉小而苦, 不堪食. 取其殼兩邊柱, 如拇指者, 淪食之, 甘美不可言.] ○ 海月·玉珧·馬頰·馬甲[同] 江瑤柱[兩柱肉. ○ 東海之北, 有魁蛤之屬極大者, 其殼上方下圓, 一隻深一隻淺, 亦名瓦壘子. 取肉作脯, 甚甘美. 謂之江瑤柱, 其誤無疑. 然中國江瑤, 亦極貴, 北方則知者尠矣. 今附辨魁蛤于下.] 魁蛤[狀如小蛤而圓, 厚背上溝壘似瓦屋. 我東湖南出如棗栗者曰고막, 關北出如櫟子者曰강요주.] 魁陸·瓦屋·瓦壘者·伏老·蚶·天鱗·蜜丁·空慈子[同. 然楊用修, 以密丁·魁蛤與天鱗·瓦壘, 分爲二物, 似以大小而別.] 《物有情類-水族-介蟲》

‘江瑤柱(강요주)’는 본래 중국 물명 ‘江瑤(강요)’의 양쪽 기둥 살을 가리키

35 柳僖, 『類錄』「萬物類」, “白魚, 生江湖, 色白, 腹扁鱗細. 大者六七尺, 頭尾俱向上, 肉中有細刺, 卽今之우럭이, 而東俗所稱맹어, 乃華語之膾殘魚. 亦名銀條魚, 許氏卻於銀條, 以銀口魚當之, 兩誤矣.”; 許浚, 『東醫寶鑑』「湯液篇·銀條魚」, “疑今之銀口魚也.”

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魁蛤(괴합)’ 가운데 매우 큰 조개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魁蛤(괴합)’의 껍데기는 위쪽이 네모나고 아래쪽이 둥글며, 한쪽은 깊고 한쪽은 얇아서 그 모양이 지붕의 기와와 같은 데서 ‘瓦壘子(와룽자)’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의 ‘江瑤(강요)’와 다르지만, 조갯살이 달고 맛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여겨 ‘江瑤柱(강요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만물류」에서도 우리나라의 ‘江瑤柱(강요주)’는 ‘瓦壘子(와룽자)’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강물에서 나는 중국의 ‘江瑤柱(강요주)’와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³⁶

4. 우리나라 한자물명의 분류에 대한 고민

유희는 『물명고』를 통해 물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해당 물명이 속하는 자연물의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다. 『본초강목』이나 『재물보』의 분류체계와 비교할 때 ‘穀(곡)’, ‘菜(채)’, ‘果(과)’, ‘草(초)’ 네 부분으로 나뉜 것이 『물명고』에서는 ‘草(초)’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분류가 상세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표제어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분류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고추’에 해당하는 물명은 『물명고』에서 ‘南蠻椒(남만초)’와 ‘番椒(번초)’로 수록되어 있는데, 가지에 해당하는 ‘茄子(가자)’와 여뀌에 해당하는 ‘蓼(요)’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

(사-1) 우리나라 한자물명(고추)의 분류

36 柳僖, 『類錄』 「萬物類」, “江瑤柱, 出南方江水, 如蛤而大, 肉苦不可食, 取其兩邊柱子如指頭者, 微淪食之. 東坡曰, 魯直詩如江瑤柱, 金聖嘆曰, 夾取江瑤柱, 滿口大嚼, 上犯天條, 下遭鬼繆, 其味之爽美, 可知也, 而東俗以瓦壘子當之, 疎矣.”.

① 南蠻椒{표제어}

茄子[가디] … 南蠻椒[莖葉如青蓼, 花實類茄子而小, 生青熟紅, 味極辛辣. 我東自倭國傳種, 고초.] 倭椒[同] ○ 番椒[고초. 近世始有, 而文字無之. 惟致富奇書, 番椒, 叢生, 花似禿董頭, 紅如血, 味辣, 可充花椒用. 今若以實字易花字, 正合於倭椒形色, 而未知花字, 的是誤書否.] … 蓼[凡七種. 옛귀]

고추의 종류를 기존의 ‘茄子(가자)’와 ‘蓼(요)’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만물류』에는 ‘고추’에 해당하는 한자물명 ‘苦椒(고초)’의 종류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 보인다.

‘苦椒(고초)’는 근래에 나왔는데 명칭에 근거가 없다. 정동유(鄭東愈)는 이것이 ‘蓼(요)’의 종류라고 했다. 그 외에 먹으로 쓴 듯한 무늬가 있기 때문이다. 나[徹]는 이것이 ‘茄(가)’의 종류라고 했다. 씨[子仁]와 햇잎[初葉] 모두 서로 비슷하고, 꽃술[花蕊]·꼭지[蒂]·속[瓢]이 서로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蓼茄子(요가자)’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⁷

유희는 정동유(鄭東愈, 1744~1808)를 통해 ‘苦椒(고초)’가 잎에 검은 점이 있기 때문에 ‘蓼(요)’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들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씨와 햇잎을 비롯하여 꽃술, 꼭지, 속의 모양이 ‘茄(가)’ 곧 가지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물명고』를 편찬할 때 ‘고추’에 대응되는 ‘南蠻椒(남만초)’와 ‘番椒(번초)’를 ‘茄子(가자)’와 ‘蓼(요)’ 사이에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37 柳億, 『類錄』「萬物類」, “苦椒, 出於近世, 而名稱無据. 鄭丈東愈曰, 此蓼類也, 以其葉之墨記也. 徹曰, 此茄類也, 以其子仁初葉之并相似, 及花蕊蒂瓢之頗相近也. 故以爲當名蓼茄子.”

우리나라 과거 급제자의 머리에 꽂는 종이꽃 ‘御賜花(어사화)’의 분류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사-2) 우리나라 한자물명(어사화)의 분류

② 御賜花{一丈紅-주해}

蜀葵[葉如葵而大, 花如槿而大, 有紅紫黃白等諸色及單葉千葉. 규화] … 一丈紅[葉長花紅者, 東俗登第簪花者, 剪紙象此花, 故亦名御賜花.]

黃蜀葵[非蜀葵之黃者也. … 朝東暮西傾之. 일일화] 日日花·側金盞·衛足葵[同. 左傳所謂葵能衛足者, 多以向日解之. 然恐指露葵能承露, 以自溉其根者也.] 《物無情類-草》

‘御賜花(어사화)’는 길고 꽃이 붉은 ‘葵(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서 『물명고』에서 ‘蜀葵(축규)’ 뒤에 배치되었고, ‘黃蜀葵(황축규)’와 별개로 기술되었다. 이는 『재물보』와 동일하다.³⁸

그런데 『만물류』에 따르면 ‘御賜花(어사화)’가 ‘해[日]를 향하는 뜻’을 취했기 때문에 ‘日日花(일일화)’나 ‘側金盞(측금잔)’으로도 불리는 ‘黃蜀葵(황축규)’의 모양을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御賜花(어사화)’의 뜻과 모양을 취한 ‘葵(규)’의 종류가 달랐던 것이다.

우리나라 과거 급제 시에 으레 (머리에) 꽂는 ‘御賜花(어사화)’는, 비단을 오려 ‘紅葵(홍규)’ 모양으로 만든다. 아마도 ‘해[日]를 향하는 뜻’을 취한 듯하다. 그러

38 李晩永, 『才物譜』 권8, “蜀葵[규화. 葉如葵而大, … 單葉千葉之異.] … 一丈紅[同. (玉)] 御賜花 [東俗登第簪花者, 象此花造之, 故云.] … ○ 黃蜀葵[해바라기]. 此則非葵之類也. 葉似梧桐, 莖如茵蔯而高大, 花大如椀口, 中含衆子. 其未及開花之時, 朝東傾暮西傾向日, 故一名向日花. 又每日一開花, 花漸小, 故一名日日花, 又因其形而名曰側盞.] ○ 衛足[凡葵之屬, 能受夜間之露緣莖下, 自沾其足根, 故曰葵衛足.]”

나 ‘葵(규)’는 한 종류가 아니다. ‘해를 향하는 것’은, 잎이 ‘梧(오)’와 비슷하며, 꽃이 누렇게 크며, 해를 보면 기울어서 옛날에 ‘側金盞(측금잔)’이라 하였다. 낮에 꽃 한 송이가 피기 때문에 세속에서 ‘日日花(일일화)’라고도 한다. 곧 당나라 시에서 ‘어제 꽃 한 송이 피고, 오늘 꽃 한 송이 피었네. 그대 蜀葵花(촉규화)를 보지 않았는가[昨日一花開 今日一花開 君不見蜀葵花].’라고 한 것이다. 또 한 종으로 ‘蜀葵(촉규)’가 있는데, 잎은 ‘露葵(노규)’와 비슷하고, 꽃은 ‘木槿(목근)’과 비슷하며, 홍색과 백색, 그리고 세 가지 색깔이 있다. 그 줄기와 잎이 빗물과 이슬을 받았다가 반드시 그 뿌리에 스스로 물을 대고 빈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葵(규)는 밭[뿌리]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사화[御賜之花]는 거의 제도에서 어긋난 것이다.³⁹

이와 같이 고민한 결과 『물명고』에서는 ‘御賜花(어사화)’를 모양이 가까운 ‘蜀葵(촉규)’ 뒤에 배열하고, 뜻을 취한 ‘黃蜀葵(황촉규)’는 뒤에 기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유희(柳僖, 1773~1837)의 저술 『물명고(物名考)』에서 소개한 우리나라 한자 물명을 중심으로 근거 제시 방식과 수록 형태, 해석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39 柳僖, 『類錄』 「萬物類」, “我國登第, 例戴御賜花, 翦綵爲紅葵模樣. 意者, 取向日之義也. 然葵之種類非一, 向日者, 葉似梧, 花黃而大, 見日則傾, 古謂之側金盞, 日開一花, 俗謂之日日花, 卽唐詩所云‘昨日一花開, 今日一花開, 君不見蜀葵花’者也. 又有一種蜀葵, 葉似露葵, 花似木槿, 而有紅白數三色, 其莖葉所受之雨露, 必自漑其根而不滴於空地焉. 故古稱葵能衛足. 然則御賜之花, 殆失制度矣.”

『물명고』에는 우리나라 물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개별 물명에 대한 주해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는 ‘東俗(동속)’, ‘我國(아국)’, ‘新羅(신라)’, ‘耽羅島(탐라도)’ 등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어구, ‘東醫(동의)’, ‘譯語(역어)’, ‘詩諺解(시언해)’ 등 우리나라 서적의 명칭, ‘李晩永(이만영)’, ‘徐四佳(서사가)’, ‘李芝峯(이지봉)’ 등 우리나라 학자의 이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이 가운데에는 중국 문헌에 용례가 보이면서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자물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사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물명은 큰 글자로 표기된 ‘표제어’와 ‘유의어’, 작은 글자로 서술된 ‘주해’의 형태로 수록되었는데, 해당 물명의 중요도 또는 보편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해석은 주로 우리나라 서적에 수록된 물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서술되었고, 특히 초목류 관련 물명에 대한 해석이 많다. 그리고 중국의 물명과는 다른 우리나라 한자물명을 고증하고, 기존 물명의 분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물명고』에 수록된 한자물명과 주해는 주로 중국의 서적을 근거로 하여 기술한 것이 많지만,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자연물의 특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물명들을 고증하고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고자 했던 유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李晬光, 『芝峯類說』.
李瀼, 『星湖僿說』.
柳億, 『物名考』.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晚永, 『才物譜』.
正祖, 『弘齋全書』.
許浚, 『東醫寶鑑』.
柳億, 『類錄』.
李時珍, 『本草綱目』.
『後漢書』.

2. 논저

- 김덕수, 『『시물명고』의 저술과 『시물명고』에 대한 서파의 언급』, 『“유희의 『시물명고』 연구” 연구결과발표회 자료집』, 2021, 1~7쪽.
김봉좌,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물명에 대한 해석과 인용문헌 연구: 『재물보』, 『물명고』, 『광재물보』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물명 집성과 DB 구축 연구 사업 제2차 국내학술회의: 조선 후기 물명서와 물명 연구』, 2022, 43~63쪽.
김일권, 『19세기초 유희 『물명고』의 분류명 내원과 분류체계 연구』, 『규장각』 59, 2019, 225~271쪽.
김일권, 『『재물보』의 자연물 분류체계 고찰과 『광재물보』 분류의 『본초강목』 의거성』, 『장서각』 49, 2023, 277~321쪽.
박부자, 『유희 『物名考』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의 가치』, 『東方學志』 196, 2021a, 125~150쪽.
박부자, 『한글물명을 통해 본 물명서의 상관관계: 『才物譜』, 『物名考』, 『廣才物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물명 집성과 DB 구축 연구 사업 학술대회: 조선 후기 물명 3서에 대한 기본적 고찰』, 2021b, 81~100쪽.
박용만, 『『物名考』 인용문헌 연구』, 『“유희의 『物名考』 연구와 색인 편찬” 연구결과발표회 자료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15~30쪽.

- 심경호, 「朝鮮後期 漢字語彙分類集에 관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朝鮮後期 漢字語彙 檢索辭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오보라, 「西陂 柳僖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오보라, 「西陂 柳僖 『物名考』의 체계 및 의의 재탐색」, 『대동한문학』 58, 2019, 245~287쪽.
- 윤향림, 「물명어휘집의 계통과 어휘 연구」, 안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덕희, 「근대 국어 물명 어휘집 연구: 사전적 분류와 어휘 체계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장유승,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 『한국고전연구』 30, 2014, 171~206쪽.
- 정승혜, 「물명류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 2014, 79~116쪽.
- 정승혜, 「물명류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국어사연구』 22, 2016, 81~135쪽.
- 정양완 외, 『朝鮮後期 漢字語彙 檢索辭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조영준, 「유희의 『물명고』에 수록된 어휘의 분류와 집계」, 『진단학보』 137, 2021, 103~128쪽.
- 최경봉, 「물명고의 온톨로지와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의미학』 17, 2005, 21~42쪽.
- 홍윤표, 「十八,九世紀의 한글 類書와 實學: 특히 '物名考'류에 대하여」, 『동양학』 18, 1987, 475~492쪽.
- 홍윤표, 「實學時代의 語彙資料集 刊行 歷史」, 『국어생활』 22, 1990, 74~92쪽.
- 홍윤표, 「柳僖의 『物名考』」,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편),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 43~74쪽.
-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 2013, 167~211쪽.
- 홍윤표, 「물명의 연구 방법과 과제」, 『한국어사 연구』 4, 2018, 241~343쪽.
- 황문환, 「柳僖의 『才物譜』 비관을 통해 본 『物名考』의 차별성: 1807년 柳僖가 李晩永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2016, 79~113쪽.
- 황문환·김진곤·김동석·김봉좌·김일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원훈·조영준·황선엽, 『물명고 역해 1~13』, 서울: 역락, 2023.
- 황문환·김정민, 「『才物譜』의 이본 계열과 선후 관계」, 『국어사연구』 35, 2022, 175~213쪽.

국문초록

유희(柳僖, 1773~1837)의 저술 『물명고(物名考)』에서 소개한 우리나라 한자물명을 중심으로 근거 제시 방식과 수록 형태, 해석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물명고』에는 우리나라 물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개별 물명에 대한 주해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는 ‘東俗(동속)’, ‘我國(아국)’, ‘新羅(신라)’, ‘耽羅島(탐라도)’ 등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어구, ‘東醫(동의)’, ‘譯語(역어)’, ‘詩諺解(시언해)’ 등 우리나라 서적의 명칭, ‘李晚永(이만영)’, ‘徐四佳(서사가)’, ‘李芝峯(이지봉)’ 등 우리나라 학자의 이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이 가운데에는 중국 문헌에 용례가 보이면서 우리나라 물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자물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사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물명은 큰 글자로 표기된 ‘표제어’와 ‘유의어’, 작은 글자로 서술된 ‘주해’의 형태로 수록되었는데, 해당 물명의 중요도 또는 보편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한자물명에 대한 해석은 주로 우리나라 서적에 수록된 물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서술되었고, 특히 초목류 관련 물명에 대한 해석이 많다. 그리고 중국의 물명과는 다른 우리나라 한자물명을 고증하고, 기존 물명의 분류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물명고』에 수록된 한자물명들은 주로 중국의 서적을 근거로 하여 기술한 것이 많지만,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자연물의 특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물명들을 고증하고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고자 했던 유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투고일 2023. 1. 7.

심사일 2024. 1. 26.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유희(Yu Hui), 물명고(Mulmyeonggo), 물명사전(thesaurus of names for things), 한자어휘분류집(collection of Hanja vocabulary classification), 한자물명(Hanja names), 한글물명(Korean names)

Abstract

The Interpretation for Korean Hanja Names of Objects in Yu Hui's

Mulmyeonggo

Kim, Bongjwa

This study analyzes the method whereby evidence is provided regarding as well as the form of compilation and aspects of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Hanja 漢字 (Chinese character) names introduced in Yu Hui's *Mulmyeong-go* 物名攷 "On the Names of Things." While *Mulmyeong-go* presents a diverse collection of Korean names for things, this analysis focuses on cases where phrases related to Korea are explicitly discussed in the explanations of individual names. The basic Korean object names include phrases referring to Korea, such as 東俗 *Dong-sok* "Eastern customs," 我國 *A-guk* "Our country," 新羅 Silla, 耽羅島 *Tamma-do* "Tamna Island," names of Korean books like 東醫 *Dong-ui* "Eastern Medicine," 譯語 *Yeok-eo* "Translated Words," and 詩諺解 *Shi-eon-hae* "Interpretation of Poetic Phrases," and citations of Korean scholars' names like 李晚永 (Yi Man-yeong), 徐四佳 (Seo Saga), and 李芝峯 (Yi Ji-bong). However, some Hanja names for Korean things lack clear evidence for Korean usage, being drawn from Chinese literature, and these cases are examined separately. Korean Hanja names are compiled in the form of "headwords" and "synonyms" written in larger characters, and "explanations" in smaller characters, reflecting the significance or universality of the respective names. The interpretations of Korean Hanja names primarily involve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names recorded in Korean texts, especially regarding plant-related names. Through this, we can observe his efforts to authenticate Korean Hanja names distinct from those of China, and his considerations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existing names. While Hanja names in *Mulmyeong-go* are mainly described based on Chinese texts, Yu Hui's intent of comparing and authenticating Korean names by highlight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ural elements in contrast to China can be discerned.